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 개막식 관련 보도자료(11.2~3) 스크랩

※ 키워드 : NEAR 참석 및 의장기 전달식

2021.11.08.(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울산종합일보	울산시, 오는 3일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막	
2	신문	연합뉴스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3일 울산서 한-러 지방협력포럼	
3	신문	아주경제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도시로 '성큼'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4	신문	울산매일신문	역대 최대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서 개막	
5	신문	서울신문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내일 개막	
6	인터넷	더코리아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7	인터넷	환경일보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8	인터넷	시민일보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9	인터넷	데일리연합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0	인터넷	부울경뉴스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1	인터넷	케이에스퍼뉴스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2	인터넷	경남에나뉴스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3	인터넷	CNB뉴스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4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5	인터넷	세계타임즈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16	인터넷	국제신문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지방협력포럼 울산에서 개최	
17	인터넷	뉴시스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 3일 울산서 개막	
18	인터넷	뉴스1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3일 울산서 개막	
19	인터넷	시사뉴스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 3일 울산서 개막... 역대 최대규모	
20	인터넷	노컷뉴스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서 개최... 35개 지방정부 참가	
21	인터넷	서울경제	한-러 수교 30주년, 울산서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22	인터넷	아시아경제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주도한다"... 역대 최대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23	통신사	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울산종합일보

HOME > 커버스토리

울산시, 오는 3일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막

박기민 기자  / 기사작성 : 2021-11-02 11:21:25

11월 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다 지방정부 참가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목표



▲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 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에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 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민 기자

[저작권자 © 울산종합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ujnews.co.kr>]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3일 울산서 한-러 지방협력포럼

송고시간 2021-11-02 06:26

5일까지 국내 17개, 러시아 18개 등 35개 지방정부 참여

회담·회의·무역 상담 등 진행..."북방경제협력으로 성장 동력 마련"



지난 2019년 9월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 본회의(지방정부 서밋)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보그다넨코 연해주 제1부지사로부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지 선포 및 깃발을 받고 있다.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3~5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 참가 지역은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28개 지방정부에다 러시아 북극 지역 7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35개로 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된다.

날짜별 일정을 보면, 3일에는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이 열린다.

4일에는 개회식, 공식 오찬, 지방정부 양자 회담, 전체 회의(서밋), 환영 만찬 등 공식 행사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5일은 울산지역 관광과 환송오찬이 마련된다.

핵심 행사인 지방정부 양자 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자체 간 1대 1회담 행사다.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자체와 연해주·사하공화국·사할린주·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기를 수여한다.



지난 2019년 9월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 본회의(지방정부 서밋)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방정부 전체 회의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 만찬에 앞선 식전공연에서는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울산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연주,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와 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 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이밖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의회외교포럼,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 참가 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는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이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 인프라와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러시아와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송철호 시장은 "대규모 항만과 정제·저장시설을 갖춘 울산은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다"라면서 "에너지뿐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 산업, 문화예술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 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1/02 06:2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아주경제

인쇄하기

닫기

-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도시로 '성큼'...'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 '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 개최
- (울산) 정종우 기자
- (jjw@ajunews.com)
- | 입력 : 2021-11-02 05:49
- | 수정 : 2021-11-02 05:49



울산시는 3~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사진은 울산대교.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3~5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지역은 기존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행사는 4일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또 5일에는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분야의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또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경제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UFEZ)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저차원탄소혁신소재연구센터는 오는 4일 테크노산업단지내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2021 울산 수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앞서 제1회 수소아카데미(7월 15일)는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전망', 제2회 아카데미(9월 30일)는 '수소 기반 안전기술 및 수소생산' 주제로 실시됐다

이번 3회 아카데미는 강의와 이야기 공연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야기 공연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궁금한 점을 들어보고, 울산수소 아카데미에 강연해준 전문가들의 답변과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 수소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사전예약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식에 맞춰 사전예약을 통해 40명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줌을 통해 60명에게 생중계된다.

- (울산) 정종우 기자
- (jjw@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U울산매일

HOME 사회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11월3~5일)울산서 개막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다 지방정부 참가

조혜정 승인 2021.11.02 22:30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목표

올해로 세 돌을 맞은 '한-러 지방협력포럼'(11월3~5일)이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핵심 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이튿날인 4일 열린다.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인데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또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마련됐고, 부대 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 상담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이번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조혜정

jhj74@iusm.co.kr

입력.편집 : 2021-11-02 17:25 조혜정 기자

서울신문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내일 개막

입력 : 2021-11-02 10:52 | 수정 : 2021-11-02 10:52



▲ 울산시청.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협력포럼이 내일 울산에서 개막한다.

울산시는 3~5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 18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된다.

3일에는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이 열린다. 4일에는 개회식, 공식 오찬, 지방정부 양자 회담, 전체 회의(서밋), 환영 만찬 등 공식 행사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5일은 울산지역 관광과 환송오찬이 마련된다.

핵심 행사인 지방정부 양자 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자체 간 1대 1회담 행사다.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자체와 연해주·사하공화국·사할린주·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기를 수여한다.

지방정부 전체 회의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 선언문'을 낭독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와 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 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 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이밖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의회외교포럼,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 참가 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는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이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 인프라와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춘 데다,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러시아와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송철호 시장은 "대규모 항만과 정제·저장시설을 갖춘 울산은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이라며 "에너지뿐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 산업, 문화예술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서 개막
11월 3일~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다 지방정부 참가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목표

최지현 기자 hbs7733@daum.net

등록 2021.11.03 08:30



[더코리아-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

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2021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 오부묵 기자 | ☎ 승인 2021.11.02 17:59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서 개막

[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메인디자인 /사진제공
=울산시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 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

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부목 기자 usob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HOME > 지역소식 > 영남권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최성일 기자 ■ / 기사작성 : 2021-11-02 17:13:42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11월 3일~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다 지방정부 참가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창출 목표

[울산=최성일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이육환 기자 loh0127@naver.com

등록 2021.11.02 12:29:59



▲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메인디자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육환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 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Copyright © 2021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회원가입](#)
[홈](#) > [뉴스](#) > [사회](#)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2021년 11월 02일 (화) 09:59:40

안태준 anteajun@naver.com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11월 3일~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대 지방정부 참가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목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에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

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울경뉴스(<http://www.bulgu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기사입력시간 : 2021/11/02 [12:29:00]

홍주성 기자 kspa@kspnews.com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메인디자인

[케이에스피뉴스=홍주성 기자 kspa@kspnews.com]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에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 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윤 이민석 기자 | 승인 2021.11.02 13:35

|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메인디자인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에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석 기자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역대 최대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서 개막, 3일~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대 지방정부 참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목표

기사입력 2021.11.02 16:20:12 | 최종수정 2021.11.02 16:20:12 | 한호수 | hanhoso7@naver.com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를 주제로 했다.

참가 지역은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 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지휘로 차이코프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 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호수 (hanhoso7@naver.com)

© 2004~2020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인쇄하기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기사게재일: [2021-11-02 12:51:45]

신보경 press123@ktin.net 기자



▲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 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자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북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

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투데이뉴스 제공-

세계타임즈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11월 3일~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개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다 지방정부 참가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창출 목표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이호근 news@thesegye.com | 2021-11-02 11:54:18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지방협력포럼 울산에서 개최

3~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양국 35개 지방정부·지자체 참가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밋 등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입력 : 2021-11-02 14:00:13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3~5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 참가 지역은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방자치단체 등 기존 28개 지방정부에다 러시아 북극 지역 7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35개로 늘었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된다. 날짜별 일정을 보면, 3일에는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이 열린다. 4일에는 개회식, 공식 오찬, 지방정부 양자 회담, 전체 회의(서밋), 환영 만찬 등 공식 행사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5일은 울산지역 관광과 환송오찬이 마련된다.

핵심 행사인 지방정부 양자 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자체 간 1대 1회담 행사다.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자체와 연해주·사하공화국·사할린주·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기를 수여한다.

지방정부 전체 회의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와 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 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이밖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의회외교포럼,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 참가 지역의 산업과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는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이 진행된다.

울산시는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 인프라와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러시아와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송철호 시장은 “대규모 항만과 정제·저장시설을 갖춘 울산은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다”라면서 “에너지뿐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 산업, 문화예술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공1김1연1본 뉴시스
NEWSIS 지방 > 울산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 3일 울산서 개막

등록 2021.11.02 07:37:41



[전주=뉴시스]지난 2019년 9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양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제공) 2019.09.06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이 오는 3일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 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기존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자체가 새로 추가

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먼저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데 이어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대일 회담 자리다.

울산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깃발을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안동=뉴스시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19년 9월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경북도의 북방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2019.09.06 (사진=경북도 제공) photo@newsis.com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 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된다.

러시아 현대미술전에는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 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 가능하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 도시이자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울산은 에너지·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 > 울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3일 울산서 개막

한국과 러시아 역대 최다인 35개 지방정부 참가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1-11-02 05:10 송고



중국-러시아 경제협력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6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가해 울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첫 날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에 이어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메인 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 1 회담으로 진행되며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 3일 울산서 개막...역대 최대규모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등록 2021.11.02 09:32:25



▲ 2019년 9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양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도 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이 오는 3일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 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기존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자체가 새로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먼저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데 이어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일대일 회담 자리다.

울산을 비롯해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깃발을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 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된다.

러시아 현대미술전에는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 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 가능하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이자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울산은 에너지·조선·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1



CBS 전국 네트워크 크리스천뉴스 노컷TV

최종편집일시 2021.11.08 (월) 10:43

전국

학원 수교 고교 대입

[남포항] 태왕아너스 273-07

최신 정치 사회 전국 경제 산업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포토 그래픽 노컷보이 핫이슈 스페셜 기획 제보

울산

한-러 지방협력포럼 울산서 개최...35개 지방정부 참가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1-11-02 10:40

뉴스듣기

0



울산시는 지난 2020년 2월 14일 시청에서 조원경 경제부시장,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 제공

- 女 작은가슴, 수술하지 말고 "이것"해라!..충격 사실 공개!!
- 허리협착증, 병원 안가도돼! "이것" 하루 5분으로 통증해결!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러시아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3~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포럼 참가지역은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다.



웰라움 더 테라스
문의 054) 745-9990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日, '적기지 공격능력 보강' 명시한 안보지침 개정키!



대전CBS 김미성 기자
대전 유성 사우나에서 연확진 이어져...누적 32명

많이본 뉴스

- 1 대선주자 李·尹에 등돌리는 2030... 이재명의 고민
- 2 [인터뷰]이준석 "김종민 선결 조건은 전권...선대위 재구성"
- 3 강아지 배변 실수는 괜찮고, 아이 실수는 안되나요?
- 4 [단독]화천대유 조세희씨 처 자금, 설계자는 글로벌 헤지펀
- 5 '2030 반발' 후유증에 흔들리는 원팀...윤석열, 현충원 참배

실시간 댓글

vgfs

2021.11.08 10:44

소주성 정책이 3년차를 맞는시점 매출 없어 수입이 고갈된 지인의 딸이 대학!

vgfs

2021.11.08 10:44

이 정부 전 나는 종합 소득세 부가세 혼년 3천정도를 냈다 이정부들어 소득주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 방문한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날짜 별 일정으로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이 열린다.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 오찬, 지방정부 양자 회담, 전체 회의, 환영 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운영,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5일에는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자체 간 1대1 회담이다.

울산·충남·전북·경북·제주·포항 등 국내 지자체와 연해주·사하공화국·사할린주·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기를 수여한다.

지방정부 전체회의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울산시는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 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 인프라와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러시아와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송철호 시장은 "대규모 항만과 정제·저장시설을 갖춘 울산은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다"라면서 "에너지뿐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 산업, 문화예술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CBS 이상록 기자

메일



HANSHIN
THEHUE

펜타시티2192 최대단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비규제지역 / 분양권 전매가능
*소유권 이전 불가 전 전매가!

11월 오픈 (예정)

총 2,192세대
(A2BL 1,597세대 / A4BL 595세대)

1811-0833

한신공영(주)

투데이 핫포토



삼성전자

19,500원 3구

3,760원 6월

1,100원 릴리스 28,420원 4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콘텐츠

- 1 콜로라도 주인을 찾습니다!
- 2 사은품 100% 증정!
- 3 쿠팡페이 경력 공채 중
- 4 코골이가 시끄러워 각방살이?! 부부 관
- 5 코골이, 수술없이 '이것'으로 단숨에 해
- 6 "퇴행성 관절염!" 병원, 주사 대신 00치
- 7 Travel with 여기어때, 개발인재 웰컴패
- 8 요즘 감성 가득한 가구 할인 받아 구매
- 9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펫테리어
- 10 미국사는 한국인들이 채팅영어 텔라로

한-러 수교 30주년, 울산서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극동과 북극을 세계 중심으로’ 3~5일 한-러 지방협력포럼

국내 17개, 러시아 18개 등 35개 지방정부 참여

회담·회의·무역 상담 등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목표

울산=장지승 기자 2021-11-02 17:53:12 국제일반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양국 지방정부 단체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제공=울산시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개최된다.

울산시는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3일부터 5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된다. 참가 지방정부는 기존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이어 이번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자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과 러시아에서 총 3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명이 울산을 방문한다.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4일에는 개회식, 공식 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 만찬 등 공식 행사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세션, 무역상담회,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핵심 행사인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자체가 1대1로 회담하는 자리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자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연해주 및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기념기를 수여한다.

지방정부 전체회의에서는 한-러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발표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와 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 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 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러 의회외교포럼,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 등도 진행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주도한다” … 역대 최대 규모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기사입력 2021.11.02 09:40 최종수정 2021.11.02 09:40

3~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서, 국내 17개 시·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 참가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메인디자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역대 최대 규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 오른다.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기존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해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첫날인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5일에는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주요 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희망 지방자치단체간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전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프린트하기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 도약한다

김금만 기자 | 승인 2021.11.02 22:18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울산서 개막

국내 17개 사·도, 러시아 18개 극동·북극지역최다 지방정부 참가

수교 30주년, 분야별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창출 목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2019년 제2차 한러지방정부포럼 블라디보스토크 연방극동대학교 현지 촬영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울산에서 막을 올린다.

울산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해 “한-러 30년, 극동과 북극을 세계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했다.

참가지역도 기존의 국내 17개 시·도와 러시아 극동관구 11개 지자체에 러시아 북극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추가돼 모두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 이는 포럼 개최 이후 최대 규모이다.

행사 참여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며,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된다.

날짜별 일정으로는, 먼저 11월 3일 참가단체 홍보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어 11월 4일에는 개회식과 공식 오찬, 지방정부 양자회담, 전체회의(서밋), 환영 만찬 등 공식행사와 분야별 전문가세션, 무역상담회, 홍보관 및 러시아 현대미술전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11월 5일은 울산관광과 환송오찬이 진행된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김금만 기자) 2019년 제2차 한러지방정부포럼 블라디보스토크 연방극동대학교 현지 촬영

핵심행사인 '한-러 지방정부 양자회담'은 참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1대1 회담 자리이다. 울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포항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연해주, 사하공화국, 사할린주, 캄차카주 등 러시아 지방정부가 참석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울산은 러시아 연해주, 사하공화국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사하공화국 회담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대 의장단체인 사하공화국이 제14대 의장단체로 선정된 울산에 의장단체 기를 수여한다.

‘한-러 지방정부 전체회의(서밋)’에서는 한-러 지방정부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제4차 포럼 개최지인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양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실천을 위한 협력 확대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한-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울산선언문’을 낭독한다.

‘환영 만찬’에 앞서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식전공연도 마련된다. 러시아 출신 울산시향 예술감독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지휘로 차이코프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연주해 양국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분야별 전문가 세션’에서는 북극항로·물류 활성화 방안, 남·북·러 삼각협력, 한-러 문화 예술 교류 현황과 전망, 첨단융합기술,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여행산업, 조선해양기자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한-러 수교 30년을 기념하는 외교사업으로 ‘한-러 의회외교포럼’도 함께 개최한다.

부대행사인 ‘무역상담회’에서는 16개 러시아 기업과 국내 관련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홍보관’은 국내 17개 시·도로 구성된 한국관, 러시아 18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러시아관, 에너지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한 울산특별관이 마련되고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쿠가츠, 이조토프, 불가코바, 텔레킨 등 러시아 현대미술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홍보관’과 ‘러시아현대미술전’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포럼 기간 내내 운영되며 일반 시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 지방정부의 호혜적 교류를 경제 뿐 아니라 과학,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으로 폭넓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북방 경제협력 중심도시, 세계(글로벌) 에너지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북극지역과 산업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협력은 커다란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결합함으로써 동북아 환태평양 지역을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에너지·조선·석유화학의 3대 주력산업과 액체화물에 특화된 항만을 갖추고 있고 최근 수소경제와 부유식해상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점 육성 중 이어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규모 항만과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에너지 허브로서의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경제·산업,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만 기자